

# 국제유가 폭락...미국발 'R의 공포'에 정유업계 비명

### 18년간 영업이익 1.6%...정유 4사 지난해 1904억원 적자 브렌트유·텍사스산원유 급추락...유가 하락에 흑반기 위기 석유협회 원료용 개소세 면세 등 제안...“정책적 배려 필요”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R의 공포' (경기침체 공포)가 짙어지며 국내 정유업계의 실적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대한석유협회는 15일 '석유산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하는 설명회에서 "미국 상호관세, 중국 경기 침체 장기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돼 올해 정유업계의 경영 실적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미국 상호관세 발표 이후 국제유가는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브렌트유는

지난 7일 배럴당 62달러까지 15% 급락했다. 서부 텍사스산원유(WTI)도 60달러 밑으로 떨어진 상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브렌트유 가격을 올해 배럴당 68달러, 내년 61달러로 작년과 비교해 각각 13달러, 19달러 하락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석유제품에는 상호관세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세계 경기 위축에 따라 석유 수요가 둔화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협회는 "미국 관세정책은 글로벌 무역과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 불확실성을 높이고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가능성을 촉발했다"며 "국내 정유업계에 수출 감소, 마진 악화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의 연대체인 OPEC+(OPEC플러스)가 5월부터 하루 41만1000배럴 생산 증대를 발표함에 따라 공급과잉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는 기존 계획의 3배에 달하는 수치로, 국제 유가 하락세를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트럼프 정부의 캐나다산 원유 관세 부과 원칙이 오락가락하면서, 국내 업계가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기대마저 꺾였다. 트럼프 정부가 캐나다산을 비롯한 원유에 대해 상호관세를 면제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급락하며 정유업계의 수익성 지표인 정제마진도 하락하는 추세다. 정제마진은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 가격과 수송·운영비 등의 비용을 뺀 값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싱가포르 복합정제 마진은 2023년 평균 배럴당 3.1달러에서 2024년 1.4달러로 하락한 뒤 올해 1~2월에는 -0.1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정유업계의 실적마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정유 4사(SK에너지·GS칼텍스·에스오일·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정유 부문에서 총 1904억원의 적자를 봤다. 국내 정유업계의 정유 부문 영업이익률은 2022년 6.4%에서 2023년 1.4%, 2024년 -0.1%로 하락

하는 추세다. 협회는 "2007년부터 18년간 정유 부문의 영업이익률 평균은 1.6%로, 바닥매 저마진 수준"이라며 "올해도 저조한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협회는 업황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선 원료용 중유 개별소비세 면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대기업 적용, 액화석유가스(LPG) 수입 부가금 형평성 개선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협회 회장은 "전 세계가 관세 전쟁이 돌입하는 상황에서 국내 정유산업이 흑하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 배려 없는 독자 생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철 맛은 '홍어 대축제'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흑산도산 홍어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점은 오는 17일까지 지하 1층 식품관에서 봄 제철을 맞은 '홍어 대축제'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홍어 대표 산지인 흑산도 수협으로부터 원산지 증명코드를 받은 흑산도산 홍어를 비롯해 국내 각 산지에서 잡은 홍어들을 만나볼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지브리 밈' 열풍에 챗GPT 인기

### 너도 나도 캐릭터 사진 만들기 모바일 앱 신규 다운로드 1위

#. 광주시 동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임지수(여·30)씨는 최근 챗GPT로 '캐릭터화'된 사진 만들기에 푹 빠졌다. 친구들과 만나 사진을 찍으면 지브리, 짱구, 슬램덩크 등 스타일로 사진을 바꾸는 재미가 크기 때문이다. 임씨는 가족들과 있을 때도 챗GPT에 대한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다. #. 광주의 한 중견회사 부장인 김학장(53)씨는 회사 자리마다 '지브리 밈'을 사용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있다. AI의 'A'자도 모르면 그는 챗GPT를 사용하고 싶어 딸에게 유류비전 결제도 부탁했다. 김씨는 "그냥 사진보다 훨씬 더 귀여운 그림체로 바뀌어 더 재미있는 기분이다"고 말했다.

'지브리 밈'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챗GPT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챗GPT는 주간 모바일 앱 신규 다운로드 전체 1위 자리를 차지하는 등 꾸준한 인기를 지키는 중이다. 15일 아이지아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일주일간 챗GPT 신규 설치는 모두 272만7599건으로 전체 모바일 앱 가운데 가장 많았다. 사용자 수 기준으로도 해당 기간 챗GPT 주간

활성 사용자 수는 343만955명(증가율 110.05%)이 늘어 급상승 순위 1위 역시 차지했다. 오픈AI는 지난달 25일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4o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출시한 뒤 전 세계적으로 사진 화풍 변환 열풍을 몰고 왔다. 해당 모델은 오픈AI의 멀티모달 AI 모델 '챗GPT-4o'와 결합한 이미지 생성 모델로, 명령어를 하나하나 입력할 필요 없이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이미지를 생성한다. 자신이나 지인의 사진을 올리면 일본 지브리 스튜디오, 디즈니, 심슨 가족 등 인기 애니메이션 화풍 이미지로 바뀌준다. 서비스 출시 뒤 특히 지브리 풍 이미지 생성이 신드롬으로 불릴 수준의 인기를 끌고 있다. 챗GPT뿐 아니라 유사 기능을 제공하는 비슷한 앱들도 덩달아 반사 이익을 누리려는가 하면, 저작권 침해 논란까지 제기되며 전방위적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챗GPT 이미지 생성 기능으로 이용자가 물려 그래픽 처리장치(GPU)가 녹아내릴 정도로 서버가 과부하를 일으키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챗GPT의 지난달 국내 월간 활성 사용자(MAU)수는 509만965명으로, 앱 출시 이후 처음으로 500만명대를 넘어섰다. 2월 MAU는 386만9088명이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주담대 변동금리 더 떨어진다...3월 코픽스 0.13% P ↓

### 연 2.84%...6개월 연속 하락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P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6개월 연속 떨어졌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월(연 2.97%)보다 0.13%포인트(p) 낮은 2.84%로 집계됐다. 작년 10월 0.03%p 하락 이후 계속 내림세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3.36%에서 3.30%로 0.06%p 낮아졌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의 경우다. 구체적으로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 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2019년 6월 새로 도입된 '신(新)잔액기준 코픽스' 역시 2.89%에서 2.80%로 0.09%p 하락했다. 신잔액 코픽스에는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의 금리도 포함된다. /장용영 기자 zzang@kwangju.co.kr

시중 은행들은 16일부터 신규 주담대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에서는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가 4.32~5.72%에서 4.19~5.59%로 0.13%p 낮아진다. 같은 기준의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 보증) 금리도 4.06~5.46%에서 3.93~5.33%로 인하된다. 우리은행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 역시 4.20~5.70%에서 4.07~5.57%로 내린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1.52포인트(0.88%) 오른 2477.41로,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94포인트(0.41%) 오른 711.92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 현대제철 임단협 마무리 노조 잠정합의안 추진 임금 10만 1000원 인상

현대제철 노사가 7개월간의 협상 끝에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마무리 지었다. 1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노조 5개 지회(순천·인천·당진·포항·하이스코)는 지난 10~14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노사 잠정 합의안을 추진했다. 앞서 지난 9일 현대제철 노사는 임금 10만1000원 인상과 '기본급 450%+1050만원'의 성과급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임단협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노사가 합의한 성과급은 평균 2700만원에 해당한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조합원 투표에서 잠정 합의안이 가결되면서 현대제철은 작년 9월 시작한 2024년 임단협 교섭을 모두 마무리 짓게 됐다. 현대제철 노사는 지난 7개월간 성과급 문제 등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파업과 직장폐쇄, 파업 철회와 재개를 반복하며 갈등을 빚었다. /연합뉴스

## 한일 재계, 다음달 27~28일 서울서 모인다

### 한일경제인회의 경제협력 모색 국교정상화 60주 공동선언 발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양국 재계의 주요 인사가 한 자리에 모여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일경제인회의가 다음달 서울에서 열린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일경제협력회는 일본 측의 일한경제협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함께 다음달 27~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더 넓고 더 깊은 한일협력'을 주제로 제57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김윤 한일경제협회장과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 등 양국 재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경제인판)을 발표하는 등 한일 관계의 유지·발전과 양국의 경제연계·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 측에서는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이, 일본

측에서는 일한경제협회 자기 회장인 코지 야키요시 아시아그룹홀딩스 회장이 각각 기조연설을 맡을 예정이다. 수소 산업과 관광, 바이오·헬스케어 등에서의 양국 협력 방안, 한일 경제 교류 현황과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주제 발표도 이어진다. 이후 참석자들은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 양국의 대표적인 민간 경제회로, 1969년 첫 회의가 개최된 이래로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열리며 양국간 경제 협력에 기여해 왔다. 지난해까지 총 참가자수는 한국 6474명, 일본 5896명 등 총 1만2370명이다. 지난해 일본 도쿄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를 찾아 양국 경제에 이익이 되는 기업 활동을 실현하기로 합의하고 '미래로 이어지는 한일 파트너십'이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원·달러 환율 소폭 상승...1.4원 오른 1425.5원

### 코스피 0.88%, 코스닥 0.41% 올라

원/달러 환율은 15일 미국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일부 진정된 가운데 소폭 상승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증가는 전날보다 1.4원 오른 1425.5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2.1원 내린 1422.0원으로 출발한 뒤 회복했다. 오후 12시13분께 1419.8원으로 1420원을 밑돌기도 했으나, 장 마감 전 상승세로 전환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9.701로 전날보다 소폭 올랐다. 이에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78%,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지수는 0.79%, 나스닥 종합지수는 0.64% 각각 상승했다. 이날 코스피는 0.88%, 코스닥지수는 0.41% 각각 올랐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관세 정책이 일부 유예되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

으나, 환율이 확실한 방향성 없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그는 "1420원선에서 바닥을 확인했다"며 "그 아래로 더 떨어지려면 국내 거시 경제 취약성이 해소돼야 한다. 경기가 좋지 않고 정치 불확실성도 외국인들이 보기에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96.99원이다. 전날 오후 3시30분 기준가인 999.23원보다 2.24원 하락한 수준이다. 엔/달러 환율은 0.43엔 내린 143.08엔이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77.41 (+21.52)
↑ 코스닥	711.92 (+2.94)
↓ 금리(국고채 39년)	2.399 (-0.000)
↑ 환율(USD) (오후 5시 10분 기준)	1427.65 (+3.55)